

## 위기와 하나님의 사람들

본문 : 느헤미야 1: 1~11

- 김사무엘 선교사

### 피할 수 없는 길

최근 저는 제 주변의 여러 가지 형편을 살펴보면서 ‘리더십’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말은 자기 주변 환경을 스스로 주도해서 바라는 목표로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자기가 원하는 방법과 목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1: 28)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중 특별히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두 가지 표현은 우리 주변의 ‘환경을 주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가정, 공동체, 회사, 그 어떠한 모임이든 그것의 앞으로 진전될 사항을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주변의 환경이 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현듯이 역경이 엄습해옵니다. 나의 능력, 지혜 그리고 어떠한 노력으로도 내게 다가오는 역경을 주도하거나 다스릴 수 없고 대신 그 역경이 나를 지배하고 나는 그 역경의 노예가 되어 끌려갈 수밖에 없는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의 원인은 우리의 죄와 부족함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역경의 폭풍이 몰아쳐왔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대로 우리 주변의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작금의 우리나라를 돌아볼 때 지금처럼 환경을 리드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가 없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회사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은 역경에 대항해서 이 곤경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리드한다’는 것은 ‘남을 거느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정복하는 사람은 세계를 정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자신을 다스려서 환경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역경에 처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그 삶이 거룩한 도구로 쓰인 것을 보며 여러분과 저에게 닥쳐온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위기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찾아보길 바랍니다.

## ‘죄’로 인한 인간의 넘어짐

3,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대로 살지 못하고 늘 죄를 범하여 시험에 빠지고 곁길로 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류와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나약함과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곁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보면 인간의 흥망성쇠와 똑같습니다.

인간의 넘어짐은 죄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인간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철저히 회개한 후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으로 그들의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그들이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고 성문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가운데 거한다는 소식을 기대했던 느헤미야가 들은 것은 그들이 아직 집도 짓지 못하고 성벽을 쌓지도 못하고 성문들은 불에 타 없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성전을 짓지도 못했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주변의 도적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약탈하는 등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임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너무도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문’은 옛날 이스라엘에서 장로들이 백성을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성문이 불에 타서 없어졌다는 것은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지도자가 부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통곡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런 사실을 들은 느헤미야는 망연자실해서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아도 주저앉아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위기로 인해 어디에 자신을 의지하고 해결을 받아야만 할 지 알 수 없어 통곡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교회의 한 성도가 경제 위기로 인해 기업의 이사로 있는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회사에 충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식값이 하루아침에 20원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진 돈도 없는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와서 두려움에 떨며 통곡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불시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통곡하다가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 ‘회개’, 해결의 실마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위기에 봉착한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통곡만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회개’라는 방책을 발견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여기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문제에 영습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자살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엄청난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구해주셨던 하나님, 죄악 속에서 구원하여 영광 가운데 자녀로 삼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기억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바빌론의 쇠사슬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약속대로 고토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억한 하나님은 그를 깜짝 놀라게 해서 그의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분이신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기억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큰 환난을 보고 그 환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실마리입니다. 이곳에 아직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나 그분이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임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마음 문을 두드리는 주님을 받아들 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기막힌 웅덩이와 죄 속에서 방황하고 헤맬지라도 주님이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구출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 제가 하나님을 크고 위대한 하나님으로 경험하길 원하오니 저를 구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조용히 마음속에 받아들 이십시오.

느헤미야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습니다. 신실하셔서 약속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느헤미야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귀를 열어서 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내 문제를 보시옵소서.”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독대하고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이처럼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탄식과 신음으로 입에서 꺼낼 수도 없는 마음속의 기도도 성령은 감찰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입으로 되어지지 않은 기도까지 포착하여 하나님께 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사정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열어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사업계획을 은행과 투자자에게 설명하듯 구체적으로 고하십시오.

## ‘기도’ 통한 자기발견과 치유

7절을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책임과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즉각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고치시 위해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주여, 고난을 당해도 당연합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막는 문제에서 눈을 떼어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우리의 자아가 깨집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책임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는 모두 남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돈이 없어 실패했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8, 9절을 말씀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흠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찌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한 다음에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너희 죄가 주홍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경비하면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우리의 병을 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은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올바른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시인하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아픈 과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위기를 자기의 환경을 자신이 지배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했다면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

하시고 인도해주시옵소서.”라고 말하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잘못된 것을 고백할 때 우리를 일으키셔서 회복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위기를 이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또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권능과 강한 손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크고 위대한 손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성문이 휘파되고 성벽이 무너졌을지라도 그분이 움직이시면 가능하다는 믿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강한 손과 위대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믿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문제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속사정을 들으시고 인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믿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

11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이 사람은 그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2장에는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 현장에 가게 하시고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성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을 감동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그가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기도로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되는 키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정곡을 발견한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합니다. 이때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2장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회복을 위한 이런 기도를 주야로 넉 달을 계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울며 가슴을 찢고 재를 뒤집어쓰는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그 역경을 인하여 울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을 인하여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귀를 열어보시옵시고 눈을 열어보시옵소서. 저를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고 그 순간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핵심을 발견하고 성벽이 무너진 후 20여 년 동안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막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역사를 느헤미야는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에 제압당하기 전에 문제를 주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욱 깊이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며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위기를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기도합시다

강한 손과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기에 봉착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변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출처: 온누리신문